



RCA 한인교회협의회 뉴욕·뉴저지 2020년 연합 신년 하례 예배가 6일 뉴저지 시온제일교회에서 봉헌됐다.

“끌고가는 목회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회하자”

RCA 교단 목회자들, 연합 신년 하례 예배 ‘은혜 만발’

미국개혁장로회(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교단에 속해 있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목회자들이 새해들어 한자리에 모였다.

RCA 한인교회협의회 뉴욕·뉴저지 2020년 연합 신년 하례 예배가 6일(월) 오전 10시30분에 뉴저지 시온제일교회에서 있었다. 예배는 뉴저지 부회장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가 인도했다. 김기호 목사(뉴욕중앙장로교회)가 기도를, 뉴저지 회장 원도연 목사(시온제일교회)가 설교를, 뉴저지 회계 정광희 목사(영광장로교회)가 합심 기도 인도를, 뉴저지 총무 김종국 목사(새언약교회)가 광고를, 남봉우 목사(오늘의목양교회 은퇴목사)가 축도를 담당했다.

원도연 목사는 요한복음 10장 1-10절을 본문으로 ‘인도하는 목자, 끌고가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원 목사는 자신이 그렇게도 원하지 않았던 이민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간증했다. 그리고, “아이 우유값과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 보려고”, 펍크가 난 뉴저지 시온제일교회의 현

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자신을 뉴저지 시온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게 했다고 말했다.

원도연 목사는 “소명을 가지고 시작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이민목회를 소명도 없이, 결단도 없이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었어서 하루하루가 늘 괴로웠다. 매 주일 설교는 해야 하는데 기쁨이 없고 억지로 이민목회를

하는 것 같아 성도들에게도 늘 미안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너의 소임은 내 양을 내 우리로 끌고 오는 것, 그것만 잘 하면 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이어 “저는 제가 끌고가는 목회를 했었다. 하나님께서는 끌고가는 목회를 하지 말고, 인도하는 목회를 하라신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저처럼 끌고가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회를 하기 바란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은 목회를 예수님께 맡기자”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예배를 인도한 송호민 목사가 ‘참’ 목도를 했다. 송 목사는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4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 속으로 기도 했다.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뉴저지 시온제일교회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떡만두국을 비롯한 푸짐한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오찬을 마친 참석자들은 안재현 목사(뉴욕총신교회)의 사회로 1시간 재미있는 게임을 즐겼다. 제기차기, 몸동작을 보고 단어 알아맞추기, 4명이 동시에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단어 알아맞추기 등의 게임을 즐겼다.

게임은 뉴욕과 뉴저지 대항으로 진행되었는데, 승리는 뉴욕이 차지했다.

해마다 장소를 바꾸어 갖는 RCA 한인교회협의회 뉴욕·뉴

저지 연합 신년 하례식은 음식은 초청자 측이 준비하고, 게임의 상품은 피초청자 측이 준비한다. 금년 게임의 상품은 뉴욕 측이 준비했는데, 게임에서 승리를 차지한 뉴욕팀이 승자에게 주어지는 더 좋은 상품을 뉴저지팀에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날 예배에 참여한 한 신자는 “오늘 예배를 인도한 송호민 목사가 ‘참’ 목도를 했다. 목도는 침묵 기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배 인도자들이 ‘목도 하시겠습니까’라고 말 해놓고 소리내어 기도 한다. 그것은 목도가 아니다. 기원 또는 개회(또는 시작) 기도라고 해야 옳다. 오늘 송호민 목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 속에 마음 속으로 기도했다. 그것이 참 목도이다.”고 말했다.

◆RCA 지역별 연합 부흥회 = RCA 교단 소속 한인교회들이 뉴욕과 뉴저지가 따로 갖는 지역별 연합 부흥회 일정과 강사는 아래와 같다.

△뉴욕: 3월 20일(금)~22일(주일) / 강사: 이종용 목사(LA 코너스톤교회)

△뉴저지: 1월 24일(금)~26일(주일) / 강사: 송용걸 목사(사카고 헤브론교회 원로목사, Light House Movement 공동대표)

◆지역별 RCA 임원들

△뉴욕: 회장 변옥기 목사, 부회장 Grace Lim 목사, 총무 박희열 목사, 회계 조대형 목사, 서기 안재현 목사

△뉴저지: 회장 원도연 목사, 부회장 송호민 목사, 총무 김종국 목사, 회계 정광희 목사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